

200자 안내

나비아 청산가자

정비석 지음

「성황당」 「졸곡제」 등의 작품으로 문단에 나온 이래 50년이 넘도록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는 저자의 자전적 에세이. 특히 「문장」지의 문학사적 의의 '정지용 시 특집이 남긴 비화' 등 한국문단 초창기의 갖가지 일화들과 작가 개인이 겪은 수난과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어, '문단이면서'로서 독자의 흥미를 끄는 수필집이기도 한다.

신원문화사/A5신/312면/3200원

소설 서태후

德齡那 지음 / 李時憲 옮김

18세에 황비로 입궁하여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청조말 4억의 중국인을 지배했던 서태후의 일생을 소설화했다. 어려서부터 개성이 뚜렷하고 고집이 세었던 그녀가 황비의 지위에 올라 카리스마적인 지배자로 군림하는 과정을 흥미롭게 그리고 있다.

예당/A5신/270면/3000원

수피의 가르침

이드레스 샤히 지음 / 박상준 옮김

이슬람 신비주의로 알려진 수피즘의 세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책. 1천여년의 역사를 가진 수피의 깊고 넓은 토양 속에서 알맹이를 끌어내어 생동감 있는 맑고 간결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춧불은 자기 자신을 비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처럼 일상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정신의 자유로움과 기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고려원/A5신/228면/3000원

푸른 아침에 떠나는 방랑

헤르만 헤세 지음 / 송순섭 옮김

방황하고 고뇌하는 젊은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과 理性, 인생의 의미 등을 차분하게 이야기한 수필집.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 「첫사랑 그 아름다운 열병」 「인생은 떨어지는

꽃잎 같은 것」 「방랑자의 겨울」 등 헤세 특유의 짙은 서정성이 담긴 글들을 모았다.

청조사/A5신/262면/3000원

빌헬름 텔

프리드리히 실러 지음 / 안인희 옮김

뷔르클라인 출신의 명사수 빌헬름 텔의 전설적 모습을 소재로 한 희곡작품. 자기 아들의 머리 위에 얹은 사과를 쏘아 떨어뜨리라는 강요를 받은 사수에 관한 전설은, 스위스가 오스트리아의 지배에서 서서히 해방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드라마적인 핵심을 이룬다. 저자는 텔을 스위스 자유와 민족적 사회적인 새 시대의 상징으로 높이고 있다.

청하/A5/218면/2800원

역사란 무엇인가

E.H.카 지음 / 조동희 옮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역사학 교수인 E.H.카의 고전적인 역사이론 입문서. 역사적인 사실은 완전한 객관성을 띤 역사가의 방향감각에 의해 해석되고 재구성됨으로써 비로소 역사적 사실이 된다는 그의 확고한 역사관이 집대성되어 있는 명저이다.

乙支出版社/A5신/194면/2500원

지옥에서 보낸 한 철

박영한 지음

제19회 東仁문학상 수상작인 박영한의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을 비롯해 단편 「빈 방에서」를 읽고, 후보작 「들과 바다와 짝호」(박순녀), 「바다가 부르는 소리」(손영목), 「천마총가는 길」(양귀자), 「원숭이는 없다」(윤후명)도 함께 수록한 작품집.

朝鮮日報社/A5신/292면/3500원

규합총서

李氏樹 옮김

우리나라 전래의 가정백과전서로 일컬어지는 책으로, 원저자는 빙허각 李씨. 각종 술 빚는 법, 장 담그는 법에서부터 팔도 명산품, 여러가지 병 치료법에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부녀자들이 알아야 할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선인들의 생활풍습과 지혜를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기린원/A5신/318면/4000원

넬리 김 나의 이야기

넬리 김 지음 / 최승 옮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체조부문 금메달리스트로 화제에 올랐던, 소련의 한국계 3세 넬리 김의 자서전. 특히 우리들에게 뜻뜻한

민족적 자긍심을 느끼게 했던 그녀의 성장과정과 눈물겨운 훈련생활, 체조에 기울이는 그녀의 열정과 부모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다.

슬라브研究社/A5/102면/2500원

여자 앞의 생

신시아 프리만 지음 / 김 철 옮김

55세에 문학의 길로 들어선 저자의 최근 장편소설. 나이에 관계없이 인간에게 닥쳐오는 사랑의 딜레마와 집념을 그린 작품으로 여류소설가의 탁월한 감수성이 돋보인다. 주인공 자네트가 소녀에서부터 결혼, 이혼을 거쳐 유태인 혈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밀도있게 진행된다.

한빛/A5/368면/3400원

핵무기는 가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엮음

남한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현황을 광범위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글모음. 피터 헤이스, 류바 자르스키 등 핵문제 전문가들의 조사보고서다. 한반도에서의 미국 핵전략, 핵명령 체계, 핵전쟁의 위험 등에 관해 관계증인·문서들을 입수하여 재구성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핵무기설치가 오히려 전쟁 유발의 가능성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민중사/A5/206면/2500원

政府의 責任

Herbert J. Spiro 지음 / 柳永玉 옮김

정부의 책임론에 대한 이론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을 다룬 책. I부 책임의 문제에서는 책임의 의미를 밝히고 법적 책임에 대한 실증주의자들의 공헌과 한계를 지적한다. II부는 공공행정과 국제정치, 법 영역내 관료의 책임 상황을 다루고 있다. III부는 책임있는 시민정신과 정당과의 관계, 정치영역, 책임의 구조로서 정부를 다뤘다.

예지각/A5/174면/2000원

儒教의 天思想

金能根 지음

天관념의 종교적·철학적 본질을 사상사적 관점에서 시대적 추이에 따라 고찰한 책. 唐虞시대부터 宋·明시대까지 주요 사상가들의 天사상을 극명하게 밝히고 있다. 결론에서는 종교심리론적·자연적 기계론적·이법적 철학적 天사상을 각각 정리했다. 부록에 유교 사상·묵가사상·양명학의 전래와 한국유가의 동향, 한자와 한글과의 관계성 등 논문 7편을 수록했다.

숭실대학교출판부/A5/264면/4800원

민족과 민족주의

어네스트 겔너 지음 / 이재석 옮김

민족주의는 근대국가의 팽창과정,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저자는 산업사회의 조직화에 근거하여 사회적 근원에서의 민족주의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의 개념정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강화된 민족주의 특성과 유형, 이데올로기와의 관계 등의 분석을 통해 민족주의의 본질을 규명한다.

藝河/A5신/198면/2800원

현대교육심리학의 과제

클래리조 외 엮음 / 전운석, 정숙경 옮김

현재 미국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각 방면에서 분석한 논문이나 논설문들을 발달·학습과 인지·개인차의 측정과 평가·교육의 혁신·교실내의 역동성 등의 주제별로 묶어 수록했다. 미국의 교육현실을 살펴봄으로써 현대교육심리학이 안고 있는 과제를 깊이 있게 분석했다.

삼영사/A5신/576면/7500원

방황하는 사람들

安載禎 지음

청소년 상담사례를 장편의 예화로 재구성, 청소년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풀어 쓴 책. 정신장애자 아버지를 둔 국교생 이야기를 비롯, 재수생의 동거생활, 성범죄를 일으킨 고교생, 이혼부의 유혹에 빠진 여고생의 이야기 등 상담실 창구를 통해 관찰된 풍부한 사례들이 소개돼 있다.

북지문화사/A5신/362면/3900원

한국인의 차와 다도

김명배 지음

차에 대한 정보와, 달여서 마시기까지의 방법을 자세히 소개한 책. 차의 성분과 효능을 통해 차 마시기의 효과를 알아보고, 차나무의 기원설을 문헌자료로 탐색했다. 차의 산지와 생산량, 차 만들기의 여러 과정, 차의 보관법을 살피고, 차문화의 3단계와 다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다례'를 설명했다. 물끓이기, 차 달이기 등 구체적인 차일에 대해서도 해설하고 있다.

기린원/A5/208면/2500원

幼兒言語活動의 理論과 實際

金玉蓮 외 지음

유아언어발달의 이론과 실제활동을 소개한 이론서. 유아언어발달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충실히 살피는 한편, 듣기·말하기·쓰기·

읽기·짓기교육의 효과적 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아동의 흥미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교육 방법 모색에 주력하고 있어, 활동중심의 교육을 해야 하는 유치원 교사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創知社/B5/302면/6000원

擴大指向의 韓國

金哲 지음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를 거쳐 현재 조선일보 국제부차장으로 있는 저자가 한국사회를 새롭게 조망한 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묶었다. 1·2부는 '민족근본주의'에 입각한 한국의 확대론을 기술했다. 3부는 1공화국에서 5공화국에 이르는 역대정권의 성격을 확대지향과 민족주의의 의지, 국가관리의 능력 등 3가지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史草/A5신/286면/3300원

徐有英文學의 研究

張孝鉉 지음

19세기 문인 서유명의 문학세계를 탐구한 논문. 金台俊의 「조선소설사」에서 처음 연구가 된 서유명의 작품을 통해 18세기 실학적 사유와 19세기말의 개화사상을 함께 조명하고 있다. 시집 「문고시선」, 소설 「육미당기」, 야담집 「금계필담」 등 서유명의 사상과 문학적 환경 등을 탐색하고 있다.

亞細亞文化社/A5/302면/6000원

발달지도서

小林芳文 지음/安秉輯·朴華文 옮김

만6세까지의 어린이의 운동·감각·언어·사회성에 관한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제시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영유아 및 장애아의 발달교육과 재활의 방법으로 운동교육(Movement Education)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는데, 이 책은 담당교사와 부모의 운동교육프로그램작성을 돕기 위해 영아기·3세 수준·6세 수준까지의 운동·언어·사회성 기능향상 교육방법을 상세히 살렸다.

民書院/B5/202면/5000원

프랜차이즈시스템 경영기법

이광중 지음

프랜차이즈란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메이커가 체인본부가 되어 독립소매점을 가맹점으로 하여 소매영업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저자는 유통산업의 현상유지식 경영에서 탈피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전환을 꾀하는 최선의 체인시스템이 프랜차이즈시스템을 주장하고, 시스템의 이점과 결점에서부터 기능·조직·계약지침·관리에 이르는 모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살폈다.

한국수퍼체인협회출판부/A5신/184면/5000원

진명여행중국어회화

권호연·차경섭 지음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회화를 12개의 상황으로 나누어 소개하는 한편, 정확한 발음기초를 익힐 수 있도록 안내한 중국어 학습교재. 중국대륙과의 관계개선에 힘입어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중국을 찾게 될 관광객들이 현지에서는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실용회화를 소개했다.

진명출판사/A5신/284면/4000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金熙德 엮음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정신적 건강법, 두뇌적 건강법, 육체적 건강법에 의존해야 다. 제1편 정신적 건강관리에서는 잠재의식개발·자기최면·살빼는 법·술 담배 끊는 법·명상을 살폈고, 제2편 과학적 에어로빅스운동에서는 운동의 필요성·효과·연령별 운동계획 및 운동에 의한 치유법을 살폈다.

미래문화사/A5신/248면/3000원

계간지

외국문학(88년 가을)

[특집] ▲20세기 동서연극의 위상 ▲브레히트와 일본 중국의 전통극(임한순) ▲친일연극운동의 전개양상(서연호) ▲베케트에 있어서의 희망(토도로프/신용영) ▲크리츠 대표희곡·수족관(이원양 옮김)

[논문] 양철복에 나타난 쿤터 그라스의 세계관(박환덕) ▲언어, 시간, 그리고 비평의 문제·폴드만의 경우(장경렬) 소설의 정신분석(르 갈리오/심재중)

[시] ▲김규태/박상배/최동호/박남철/이정주/르노

[소설] ▲박인홍/최수철/장정일/베케트 [오늘의 세계문학] ▲마르케스 편(피터스톤/송문근)

[서평] ▲정현기/전강수/남진우



무크

지배문화, 남성문화

또하나의 문화 엮음



“남편은 예고도 없이 이들을 외박한 채 새벽에 들어왔다.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는 침대 속으로 쏙 들어갔다……나는 길다란 비닐 호스를 들고 와서 그 한끝을 남편의 침대 속, 이부자리에 넣어 놓고 다른 한쪽을 끌고 가서 부엌의 수도꼭지에 꼽

화제의 책

목시록의 四騎士

E.펜체프 엮음/申福龍 옮김



오늘날 고도의 문명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는 공해, 가난, 굶주림, 폭력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여류사회학자인 에스터 펜체프는 이 네가지 문제야말로 현대문명을 파괴시킬 '목시록의 四騎士'라는 긴박한 문제의식

화제의 책

우리들의 문학교실

문학교육연구회 편



현직 국어교사들이 제도적 틀에 갇혀 '죽은 지식'만을 생산해내는 현행 국어교과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보다 바람직한 국어

었다. 그리고는 물을 틀었다. 남편이 소리치면서 깨어났다.”

여성同人들의 모임 「또하나의 문화」가 펴낸 네번째 무크지의 한 대목이다. 조형(이대), 조혜정(연세대), 조옥라(서강대), 장필화(이대) 등 여성학을 전공하는 학자들과 고정희(시인), 이경자(소설가) 등의 문인이 주축이 된 이 모임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남녀관계에 대해 다양한 접근과 분석을 해왔는데, 특히 이번에는 남성이라는 대립항에 해부의 칼을 들고 있다.

여성에게까지 내면화된 남성우월주의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좌담, 논설, 창작, 수기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권말에 '남성동인 스케일'이라는 글을 실어 우리 시대에 요청되는 이상적 남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청하/A5신/303면/4000원

아래, 이들을 주제로 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문을 한자리에 모아 문제의 심각성을 경각시키는 한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공해」편에서는 산업폐기물에 의한 자연의 황폐화와 소음공해 등의 실태를 분석했다. 공해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구전체의 문제로 인간의 생존자재를 위협한다는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가난」과 「굶주림」편에서는 미국과 남미 지역의 빈곤 및 인구와 식량의 충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세계인구의 3분의2가 최소영양 수준에 미달하는 식사를 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간극임을 지적했다.

「폭력」편에서는 폭력의 발생원인과 폭력범죄의 실태 및 폭력방지안 등을 다각도로 접근했다.

평민사/A5신/592면/8500원

교육을 모색하기 위해 '대체 교과서'로 펴낸 책. 대상은 중2부터 고2까지로 잡았으며, 자율적이며 주제적인 국어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담겨 있다.

▲ 친일문학인의 글 ▲ 국책이념의 전달 수단으로서의 글 ▲ 순수문학이라는 미명 아래 실린 애상조의 글 ▲ 지식인의 신변잡기와 같은 글을 실지 않고, 대신 ▲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가 살아 숨쉬는 민요(알강달강, 모내기노래, 정선아라리, 파랑새야)와 판소리, 탈춤 대본 ▲ 남·월북작가의 작품(정지용의 「향수」 조병희의 「낙동강」) ▲ 현역작가(전상국, 박완서, 황석영)의 소설과 현역시인(김광규, 김용택, 황동규, 박노해, 김지하)의 작품이 실려 있다.

까치/A5신/319면/3200원